위대한 김일성-

로동신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김정은동지 만세!

제115호 【루계 제24893호】 주체104(2015)년 4월 25일 (토요일)

사 설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은 총대의 굳건한 담보와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는 불패의 위업이다. 장구한 나날 가장 첨예한 반제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인류의 운명수호의 중임을 훌륭히 감당하여온 백두산총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크나큰 자랑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을 맞이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건군절은 선군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의 불패성에 대한 신념과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뜻깊은 명절이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세기를 이어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주체21(1932)년 4월 25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만년민족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다. 주체혁명의 억센 뿌리와 우리 인민의 백승의 영웅서사시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도 혁명무력의 창건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짧은 력사적기간에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면에서나 정규화적면에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세계의 군건설사는 장구하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률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혁명적무장력을 알지 못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의 80여년 력사는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창조하고 빛나게 이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전략사상과 세련된 령군술로 우리 혁명무력을 이끄시여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고귀한 승리의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필승의 기질과 본때는 세기를 이어온 치렬한 반제군사대결전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청소하였던 우리 혁명무력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피수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판가리결사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한것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군사적기적이다. 력량상 대비할수없이 우세한 적들과 맞서 유격전에서나 정규전에서도, 총포성없는 장기적인 전쟁에서도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온것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속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이름은 무적필승이라는 영예로운 호칭과 함께 불리우게 되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은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인민군대의 승리의 전통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최후승리로 빛내이시기 위해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최전연 초소들로부터 외진 섬방어대들에 이르기까지 인민군대의 각 군종, 병종부대들에 대한 백두령장의 끊임없는 현지시찰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식의 기묘한 작전전투방안과 전투조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모든 부대들의 싸움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시켜주시는 현명한 령도로 수놓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새 세대 인민군장병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시대화, 체질화하고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들로 자라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인민군대의 정신력과 전투력이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인민에게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승리의 력사는 끝없이 흐를것이며 선군혁명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전군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다.

수령의 령도는 혁명군대의 생명이며 불패성과 위력의 근본담보이다. 조선인민군이 류례없이 엄혹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백승의 전통을 창조하고 빛내여올수 있은 근본비결은 수령결사옹위를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투쟁한데 있다. 조국이자 수령이고 수령옹위이자 혁명의 승리라는 드놀지 않는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최고사령관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것은 항일의 나날로부터 높이 발휘된 우리 혁명무력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투철한 수령옹위정신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의 명맥, 백두의 혈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한 제일근위대오도 인민군대이며 단숨에의 공격속도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희한한 전변을 이룩하여 령도자의 결심은 곧 선군조선의 실천임을 온 세상에 과시한 결사관철의 기수도 우리 인민군대이다. 초소를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한겨울의 바다물속에 저저마다 뛰여들어 《김정은 결사옹위》구호를 열광적으로 부른 인민군군인들의 눈물겨운 모습은 선군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일심단결의 서사시적화폭이다.

전군에 맥박치는 수령옹위정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상과 뛰여난 인품, 뜨거운 인정미에 완전히 매혹된 인민군장병들의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충정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령장이시기 전에 슬하의 장병들 한사람 한사람을 선군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 전우로 대하시며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인덕의 최고화신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그 품을 하늘땅 끝까지 따르려는것이 우리 총대전사들의 인생관이다. 이런 정신력의 강군을 당해낼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령활무쌍한 전략전술과 전법,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무적의 강군이다.

불굴의 정신력과 확고한 전략전술적우세에 강력한 군사기술적위력이 안받침된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적필승의 위용이 더욱 높이 떨쳐지는 군력강화의 최전성기이다.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우리 식의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무장하고 무쇠같은 체력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만능의 지휘관, 만능병사가 되기 위한 훈련열풍이 전군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핵억제력을 포함하여 최첨단수준의 공격 및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미제의《군사기술적우세》를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올해에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과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을 비롯한 전투훈련들은 우리가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다 준비되여있으며 그 어떤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적들을 전격적으로 섬멸할수 있음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만약 원쑤들이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과 생존권을 감히 침해하려든다면 침략자들의 전초기지들은 물론 그 아성까지 깨끗이 벌초해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의 담력이고 배짱이다. 지난 조선전쟁때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간자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는 때가 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들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최후승리를 위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가는 불패의 혁명무력이다.

군민대단결은 적들의 그 어떤 수적, 기술적우세도 타승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변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되고 공고발전된 군민일치, 군민대단결은 오늘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들어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자랑찬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적들의 발광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지만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와 건설투쟁을 맹렬하게 벌려나가는것이 우리 인민군군인들이다. 지금 인민군대의 뜨거운 애민정신과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기풍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군민협동작전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기적을 낳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더한층 다지는 위력한 투쟁방식이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군대와 인민이 진정한 동지적관계로 결합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이다. 이 단결을 밀뿌리로 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보루는 영원히 금성철벽이며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올해는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밑에 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끝없이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과 자주적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실록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 갈피갈피에 깃들어있는 백승의 투쟁원칙과 전략전술, 방법론을 자기의 뼈와 살로 새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을 잘 꾸리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것이 인민군대와 사회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반제계급교양, 승리전통교양의 거점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참관조직과 운영을 잘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고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무력건설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 김정은결사옹위의 전위대가 되여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도 발걸음도 운명도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동지, 전우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실현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풍모를 계속 힘있게 과시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은 적들의《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으로 타승한 전통이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무력의 최강의 무기인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곧 치렬한 전투와 같다.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멋따기,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모든 군인들을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워내야 한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여 전투력을 다지고 자기 도와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인민군대가 본보기, 기수가 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이다. 인민군대가 맨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나갈 때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미래가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된다.

인민군대는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력사를 꿋꿋이 이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숭고한 정신도덕과 혁명적인 투쟁기풍, 문화정서생활기풍을 보여주어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과 인민군대의 고상한 문화가 끊임없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따라배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발전시켜오신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우리를 고무하고있으며 희세의 선군령장의 세련된 령도가 새로운 승리에로 우리를 이끌고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시작된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세세년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건군절에 즈음하여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2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군사적으로 더욱 굳건히 담보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외국의 벗들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찬양하고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크나큰 행운이다.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정치를 빛나게 계승하시기에 조선은 그 어떤 방해책동에도 끄떡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기적과 위훈을 낳게 하는 무한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령군술을 지니신 김정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은 강위력한 나라로 더욱 빛날것이다.

네팔자꼬갱생연구회대표단 단장 쑤바쉬 까지 쉬레스타는 방문을 통하여 조선의 강력한 국방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자기 당과 수령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다.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밑에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느끼였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조선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고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대표단 단장 미하일 빤첸꼬는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영웅적군대가 있기에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있다,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리라고 믿는다고 토로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괄로 음붐바는 조선인민은 강위력한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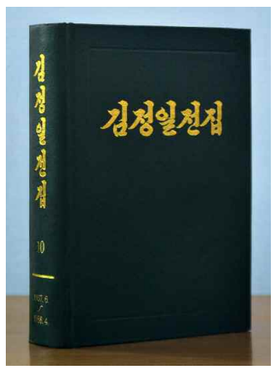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 사회주의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영웅적인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적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섬멸적타격을 가할것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전집》 제10권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 제10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6(1967)년 6월부터 주체57(1968)년 4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91건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로작들에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앙양된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비상히 고조시키시고 조선로동당 제2차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인민군대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기본목적과 그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기본목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실현하자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을 실속있게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할데 대한 위대한 선군령장의 숭고한 뜻이 로작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혁명무력건설사상을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군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우리 당의 자위사상과 〈일당백〉구호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에 담겨져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국방에서 자위, 《일당백》구호의 본질과 진리성을 밝혀주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군사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로작 《수령님의 위대성교양을 잘할데 대하여》에서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특징짓는 3대풍모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수령님의 풍모를 깊이 인식시키는데로 지향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당사상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우리의 출판보도물을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출판보도물로 만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이 《〈김일성저작선집〉출판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 《출판보도물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적언론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등의 로작들에 제시되여있다.

로작들은 《김일성저작선집》 출판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 출판보도부문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대적언론전의 도수를 계속 높일데 대한 사상을 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사상사업의 총적방향에 맞게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4.15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길데 대하여》를 비롯한 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로작들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 음악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재현하는 사업을 영화로부터 시작할데 대한 문제 등 혁명적문학예술건설과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독창적이며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정탐행위를 날날이 폭로단죄할데 대하여》,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등의 로작들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의 정당성과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며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방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발표하신 로작들인 《알곡생산을 늘이며 양어를 발전시켜야 한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 《클고기잡이와 가공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가금업을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닭고기생산을 늘여야 한다》에는 농업과 수산,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이 밝혀져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며 대학들에서 교육강령을 바로 편성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완비할데 대한 문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대한 리해를 옳바로 할데 대한 문제 등을 밝힌 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김정일전집》 제10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숭고한 정신도덕과 혁명적인 투쟁기풍, 문화정서생활기풍을 보여주어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과 인민군대의 고상한 문화가 끊임없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따라배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발전시켜오신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우리를 고무하고있으며 희세의 선군령장의 세련된 령도가 새로운 승리에로 우리를 이끌고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시작된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세세년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받들어 승리의 전통 영원히 빛내가리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이 어리여있는 오성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6월
→ 조선인민군 제4군단사령부관하 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2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련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11월

군종타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1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8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7월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1(2012)년 2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10월

최전연초소를 지키고있는 섬방어대 군인들을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2(2013)년 9월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3월

명포수들로 자라난 웅도방어대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3(2014)년 7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경축

중 앙 보 고 대 회 진 행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3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은 주체혁명위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세기를 이어 당과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영광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진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영웅, 접견자들, 제대군인, 인민군후방가족, 원군공로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끄시여 선군혁명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붓기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 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조선인민군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륙군대장 리영길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과 유훈을 혁명무력강화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갈 참가자들의 혁명적기상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는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빛발치는 기념비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 강성번영의 길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빛나는 선견지명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적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가장 위력한 당과 군대, 혁명정권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주체의 사회주의도,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도,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도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놓으신 혁명유산들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우리 당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운것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는것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서이다.

백두에서 개척되여 승승장구하여온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로정을 꿋꿋이 이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이 있는 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끝없는 륭성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이 자주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탁월하고 세련된 혁명의 령도자이시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자주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사대와 교조를 단호히 배격하시고 기성의 리론이나 기존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관점에서 보고 대하시며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확고히 견지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마련되였으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게 되였다. 자주의 기치, 이것은 우리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자력갱생의 본때로 세상을 놀래우는 세기적변혁들을 이룩해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오늘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조국이 세계적인 정치파동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신념이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맥박치고있기에 자주는 영원히 조선의 넋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이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영광스러운 선군령도의 자욱으로 빛나고있다. 항일의 결전장에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선군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한생을 제국주의와의 투쟁속에서 보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전행정에서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인민과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적과의 싸움에서는 물론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는데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일찌기 두자루의 권총을 가지고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혁명적인 정규무력을 건설하시였을뿐아니라 비범한 령군술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의 력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선군혁명의 밀음직한 척후병, 억척의 지지점으로, 수령님께서 건설하신 강력한 국방공업은 경제강국건설의 기판차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중요한 초소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치는 전투대오로, 선군문화의 창조자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 국방공업이 현대적인 우리 식의 위력한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백두산병기창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선군혁명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빛내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고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히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위력떨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인민의 락원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수 있게 하는 만년재보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이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가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업적이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로, 행복의 터전으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시기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수 있은것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올수 있은것도 주체의 사회주의가 자신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나가기에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의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어버이수령님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더욱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혁명과 건설을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전진시켜나가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 국가,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며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윤 철 희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근위땅크부대에 세기신 자욱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근위땅크부대를 찾으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월의 무더위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부대장병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군대가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전투정치훈련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사상, 붉은기중대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사상, 우리 식의 국방공업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데 대한 사상으로 일관된 그이의 교시는 부대장병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것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무력건설구상이 집대성된것으로서 이후 우리 당과 국가가 군건설, 국방력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 비범한 령도실력과 인민의 령도자, 천출명장으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였으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선언—만능의 보검

인류정치사에 선군정치라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 있으며 우리 당의 정치가 다름아닌 선군정치라는것이 세상에 알려진것은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체88(1999)년 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

선군정치의 전면적실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백두령장의 력사적인 선언,

순간 격정의 파도가 장내에 일어번졌다.

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을 하지 않고서는 당과 국가건설을 제대로 할수 없을뿐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꽃피워나갈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전에 내리신 결단이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걸으신 혁명령도의 길에서 심장깊이 간직하신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였다.

선군으로 혁명령도의 시작을 떼시였을뿐아니라 혁명령도의 전기간 선군을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희세의 선군정치가, 선군령장이시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은 대를 이어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영광떨칠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륙군대장 리영길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백두의 대업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로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건군절은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을 가진 민족적긍지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주는 전인민적인 명절입니다.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의 억센 뿌리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위력한 우리 조국의 위상,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삶과 미래는 력사의 이날과 잇닿아있습니다.

뜻깊은 건군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고있는 영용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의 해방과 통일독립,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준엄한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오늘도 병사시절의 한모습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는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선인민군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빛내이며 백승의 위훈을 창조하여온 영광스러운 혁명적무장력입니다.

력사는 우리 군대와 같이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장장 80여성상 희세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고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령도, 하나의 혈통만을 굳건히 받들어온 혁명군대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선군의 철리를 밝히시고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백두의 수림속에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항일의 무장대오를 진두에서 이끄시여 일제를 격멸하시였고 해방후 새 사회건설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정규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습니다.

반제혁명전쟁사에 길이 빛날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이룩하는 나날에 조선인민군은 백두령장의 기질과 담력을 그대로 이어받고 만능의 주체전법과 풍부한 전투경험, 수많은 혁명적골간을 가진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창조한 승리의 전통은 제국주의자들의《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으로 타승하는 필승의 전통이고 우리 식의 우월한 전법과 전략전술로 걸음마다 적들을 족쳐대며 패배를 안기는 멸적의 전통이며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는 백승의 전통입니다.

세계 그 어느 군대도 가지지 못한 이 위대한 전통을 세기를 이어 계승해왔기에 우리 군대가 오늘처럼 강한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과 자위의 군사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하시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현대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

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자위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총대가 없어 식민지망국노로 굴러떨어졌던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운명개척의 강위력한 보검을 안겨주시고 민족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건군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였습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일찍부터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짓부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최정예전투대오로 위용떨쳐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선군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쌓아올리신 군건설업적은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확립으로부터 군민대단결을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군사사업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는 백과전서적인 업적이며 그것은 선군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끊임없이 이어가신 최대열점지역 섬방어대들에로의 풍랑사나운 배길과 판문점, 까칠봉의 최전연초소길들,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들에는 혁명무력강화에 바쳐가시는 백두령장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제1차 비행사대회를 비롯한 대회합들은 오중흡7련대의 고귀한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모든 중대, 대대들을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 고향마을로 전변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80여년의 영광스러운 건군력사를 아로새겨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오늘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세계적인 강군, 김정은혁명강군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당중앙의 령도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의 대업을 이룩하실분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한분뿐이시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전군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적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이 확고히 서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지휘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동지로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은 제국주의군대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인민군대의 고유한 특질이며 최강의 무기입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와 같은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당의 절대적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한것은 조선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입니다.

인민군대가 간고한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끝까지 함께 하는 제일전우부대로 자라난것은 주체의 건군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여주는 가장 고귀한 성과입니다.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담력과 지략으로 싸워 승리만을 자기의 성스러운 기폭에 아로새겨나가는 천하무적의 강군입니다.

무비의 혁명배짱을 지니고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내려다보며 타승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력사적으로 발휘하여온 담대한 기질이며 이 자랑스러운 기질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긍지높이 이어지고있습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리는 원쑤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관용을 모르는 견결한 반제계급적립장, 적들의 오만한 핵공갈에는 정의의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맞받아나가 단호히 짓뭉개버리는 백두산식대응방식, 바로 이것이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쳐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본때이고 투쟁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곳에서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고 침략자들이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을 강요한다 해도 일격에 소탕해버릴수 있는 우리 식의 우월한 전법과 강력한 타격수단들을 가진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으로 자랑떨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최근시기에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과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들은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기상과 필승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동지들!

조선인민군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 제일돌격대입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앞에 나서는 수많은 방대한 과업들을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으며 우리 군대는 당의 믿음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고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로력적위훈을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당이 준 과업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완전무결하게 집행하는 인민군대의 일당백공격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은 백두산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징으로 빛나는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10월8일공장과 같은 새 세기 산업시설의 본보기들, 시대의 전형단위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진것은 인민군대의 헌신적인 투쟁과 창조기풍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선구자인 인민군대와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인민들이 하나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선들에서 돌파구가 열리고있으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올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군대가 세기를 이어 발휘하고있는 높은 혁명성과 영웅성, 인민군장병들이 조국과 인민, 시대앞에 쌓아올린 혁혁한 위훈과 거대한 공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며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위력은 인민군대의 위력이며 군력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대원수님들의 주체적군사사상과 유훈을 혁명무력강화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신념과 량심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튼튼히 확립하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려 인민군장병들을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는 참다운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한자세, 한모습으로 백두의 총대혁통만을 받들어나가는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빨찌산식훈련열풍으로 전군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고 전투정치훈련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모든 군인들을 현대전의 능수,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들로 키우며 그 어떤 불의의 정황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군에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후방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병사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서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해나가며 언제어디서나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1950년대의 군자리정신으로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과 함께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민항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군민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체육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빛내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과 도발책동으로 하여 예측할수 없는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은 높은 혁명적경각성과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만약 원쑤들이 공화국의 신성한 령공과 령토, 령해에 단 한점의 불찌라도 날려보낸다면 침략자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그 본거지에서 완전히 괴멸시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입니다.

우리의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정세는 의연히 준엄하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백승의 전통과 전략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가 22일과 23일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진행되였다.

《세계평화와 번영촉진을 위한 남남협조강화》라는 주제밑에 진행된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90여개 나라와 지역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개막회의에서 공동의장들인 인도네시아대통령 죠꼬 위도도와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연설하였다.

그들은 현시기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유엔이 무시되고있는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시급히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정의를 보장할수 있도록 유엔을 개혁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렬강들의 지배주의 정책에 맞서 두 대륙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다무적 무역제도를 수립할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반둥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 전면적인 남남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빈궁을 청산하고 두 대륙의 경제발전과 지속적개발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30여개 나라 대표단단장들이 연설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인디아양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데 대해 인정하였다.

회의는 새로운 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며 4월 24일을 아시아-아프리카의 날로, 반둥을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의 도시로 선포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반둥성명, 새로운 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 확대발전에 관한 선언, 팔레스티나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를 10년에 한번씩 조직하며 2년에 한번씩 유엔총회를 계기로 아시아아프리카각료급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란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태양절에 즈음하여 만쑤르 차보쉬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4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조선이란친선협회 위원장인 정영수로동상,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만쑤르 차보쉬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4월 15일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린 태양의 날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계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위협공갈과 압살책동을 물리치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념원을 실현하리라는것을 믿는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은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성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이란의 벗들이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을 우리 인민과 함께 경축하는것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시대를 향도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령도하시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념원하신 통일된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반드시 일떠설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이란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하싼 루하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로씨야련방 정부경제대표단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정부경제대표단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렉싼드르 마께고라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일요일(26일) 10시부터 청춘거리 중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평양철도국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유술 1급경기가 벌어진다.

요트, 물스키 1급 남, 녀경기들이 평양의 대동강과 원산의 송도원에서 28일까지 각각 진행되게 된다.

지난 21일부터 평양항공구락부에서 시작된 락하산성인급 남, 녀경기가 28일까지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항일의 전구에서 창조된 군민대단결의 전통과 혁명적기풍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우리의 인민군대가 제일입니다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인민들이 한목소리로 터치는 심장의 웨침,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입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장한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눈비오는 전호가에서 행복에 웃음짓는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한밤을 지새우고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감히 선불질을 해댄 불망종들에게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퍼부어 우리 인민들에게 통쾌한 승전의 기쁨을 안겨준 인민군군인들이다.

전호가에 가슴을 대고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미더운 인민군대가 있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우리가 마음놓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날에날마다 인민들의 눈가에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수산태양궁전,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과 평양육아원, 애육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과 5월1일경기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각지에 꾸려진 공원, 체육시설들…

대성산유희장 남문앞공지 련못가에는 《인민사랑 주체101.9.1》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열렬한 사랑의 웨침이다.

몇해전 한 병사는 풍랑사나운 서해의 날바다에서 뜻하지 않게 조난을 당하였던 20여명의 인민들과 배를 희생적으로 구원함으로써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참된 인민의 군대는 없다.

오늘도 인민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새집들이를 하던 날 과학자들과 그 안해들은 새 집부뚜막에 놓여있는 성냥과 불쏘시개감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새 살림집의 주인들이 오면 곧 불을 지피게 될 작은 부뚜막, 거기서 솟구쳐오를 행복의 불길을 자기들의 손으로 지펴주고싶은 마음으로 군인건설자들이 마련해준 성냥과 불쏘시개감이였다.

레년에 없는 무더기비로 검덕지구와 조양땅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현지로 달려갔던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소행들을 그곳 인민들은 감동깊이 추억하고있다.

길옆에 있는 집들의 울타리가 상하지 않게 중기계들의 속도를 늦추었다는 이야기, 인민들이 마련해준 수많은 원호물자들을 고스란히 탄부들과 광부들, 주민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펼쳐졌던 군민대단결의 화폭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가을비가 내리던 날 저녁무렵 아침부터 스키주로에 잔디를 심기 위해 건설장에 달려왔던 강원도안의 인민들은 군인건설자들이 마련해준 훈훈한 숙소에서 아늑한 잠자리에 들었다. 저녁식사시간에는 숙소에서 군인건설자들이 끓여준 더운 국그릇까지 받고.

다음날 아침 군인건설자들이 자기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온밤 현장에서 야간전투를 벌리였다는것을 알게 된 인민들은 눈굽을 적시며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정말 우리 인민군대가 제일입니다.》

이런 훌륭한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을 어찌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수 있으랴.

부를수록 정이 가고 바라볼수록 미덥기만 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다.

비록 허리띠를 조일망정 더위해주고싶고 모든것을 다 바쳐 며받들어주고싶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다.

색다른 음식이 하나 생겨도 초소의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고 눈비가 오면 천리방선의 전호가를 그려보며 성의껏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생활로 굳어졌다.

병사들모두가 내 아들딸들이라고 정답게 외우며 원군의 길을 끌없이 걷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에는 이런 진정이 꽉 차있다.

우리 곁에는 인민군대가 있다.

조국의 안전이 지켜지고 행복이 꽃펴나는 모든 곳에 우리 인민군대가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인민들이다.

불같은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하나로 합치였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인민을 위해 구슬땀 헌신의 자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뜰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어느날 저녁어스름이 깃들던무렵이였다.

평양시의 한 공원에서는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일손을 놀리고있었다.

군인들은 공원에 널려진 검불들을 걷어내고 유희시설들에 오른 먼지도 말끔히 닦아내였다. 오리를 형상한 동물회전반의 고정나사를 하나하나 다시 조이고 로라스케트장과 배구장, 롱구장에서 물이 고여있거나 살얼음이 진 자리를 닦아내는 그들은 어둠이 깃드는것도 잊은듯싶었다.

사위가 어두워지자 군인들은 전지를 켜들고 걸음길에 깐 블로크의 수평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공원의 곳곳에서 비쳐지는 전지불들을 발견하고 공원관리원이 달려왔다.

그는 작업공구를 잡고있는 군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러면 안됩니다.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할 일인데…》

지휘관인듯싶은 군관이 웃음을 지으며 관리원에게 다가왔다.

《인민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이건 우리 군인들이 응당 수행해야 할 임무입니다.》

뒤늦게야 공원관리원은 며칠전부터 밤마다 공원을 깨끗이 거두어주던 주인공들이 다름아닌 이 군인들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군인들과 함께 작업을 끝마치고 시계를 들여다보던 관리원은 그제서야 저녁식사시간이 퍼그나 지났음을 알았다.

관리원은 공원의 구석구석을 다시금 살펴보고있는 군인들에게 잠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급히 돌아섰다. 공원가까이에는 식료품상점이 있었다. 고마운 군인들에게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이고싶었던것이다.

관리원의 속생각을 대뜸 짐작한 군인들이 앞을 막아섰다.

《일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건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이 공원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공원을 떠나기에 앞서 군인들은 자기들이 마련했던 여러가지 관리도구들까지 넘겨주었다.

멀어져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관리원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눈앞에 군인건설자들이 이 공원을 꾸려주던 때의 일들이 눈물겹게 안겨왔다.

그때에도 군인건설자들은 여러가지 색갈의 칠감을 비롯한 공원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을 남겨두고 떠나갔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려고 애쓰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정깊고 대견한것인가.

그날 공원관리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군인들은 이동작업을 나왔던 김일성정치대학 교원, 학생들이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인민관을 뼈와 살로 새긴 이런 인민군군인들이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웃음이고 행복이여서 내 조국이 그리도 밝고 아름다운것이다.

본사기자

병사가 안고온 자랑, 고향마을의 부탁

문천시 덕흥리에 펼쳐졌던 화폭을 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밀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지난 1월 중순 문천시에서도 가장 외진 산골인 덕흥리에 큰 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수여하신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장을 받아안은 근위부대의 분대장이 표창휴가를 받고 고향마을을 찾은것이다.

그가 바로 덕흥리 10인민반에서 사는 농장원 정원호동무의 막내아들 정광일동무였다.

최상의 영광과 크나큰 자랑을 지니고도 소문없이 고향집문을 조용히 열었건만 격정없이 들을수 없는 희소식은 날개라도 돋친듯 그날로 덕흥땅만이 아닌 온 문천시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텔레비죤화면과 신문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에 접하고도 명포수메달을 수여받은 장한 병사들속에 정광일동무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의 가족, 친척들은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사실앞에서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있었다. 한참만에야 이 모든 사실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은 그들은 정광일동무를 얼싸안았다.

어찌 정광일동무의 가정뿐이랴.

《우리 산골마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병사가 나왔으니 개천에서 룡이 났수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며 정광일동무가 안고온 자랑을 제 집경사인듯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시와 농장의 일군들, 모교의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명포수병사의 손목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정광일동무의 집은 낮이고 밤이고 환희로 들끓었다. 정광일동무를 축하하는 환영모임이 그의 모교인 덕흥고급중학교와 농장에서 뜻깊게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명포수상장과 명포수메달, 명포수휘장은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고귀한 충정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저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그날의 격정이 되새겨지는듯 감격에 목메인 정광일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였다.

정광일동무의 이야기에 감동되여 축하모임의 연단에 뛰여오른 인민군후방가족의 한 녀성은 모든 후방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

한가정 울타리 뛰여넘어서
조국의 큰집 지켜선
아들아 선군의 장부가 되여
어머니품에 안겨라
…

축하모임에서 리당일군은 정광일동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는 정말 장한 일을 하였소. 우리도 동무에게 뒤지지 않게 농사일을 더 잘하겠소.》

환희와 격정속에 표창휴가의 날들은 흘러 어느덧 정광일동무가 초소로 떠나는 날이 왔다. 덕흥땅만이 아닌 문천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맵짠 추위도 아랑곳없이 이른아침부터 거리와 마을로 떨쳐나와 꽃다발을 흔들어주면서 초소로 떠나가는 정광일동무를 열렬히 환송해주었다.

박봉덕로인을 비롯한 마을의 늙은이들은 정광일동무의 손목을 꼭 잡고 동구밖 멀리까지 따라나왔으며 나어린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명포수아저씨—》하고 부르며 한달음에 달려나와 병사의 옷자락에 동동 매달리였다. 그 모습들을 보는 정광일동무의 마음은 뜨거웠다.

총잡은 병사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를 고향의 자랑, 시의 자랑으로 내세워주며 뜨겁게 바래워주는 후방의 인민들과 학생들, 그들의 모습에서 조국의 장한 병사가 되여줄것을 바라는 고향마을의 소중한 부탁을 다시금 새겨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

지난 1월 문천시에 펼쳐졌던 그 화폭에서 인민들은 보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참모습을.

본사기자 리 건 일

항일의 나날 끝없이 울려퍼진 물방아소리와 더불어 세월의 언덕을 넘어 꿋꿋이 이어져온 원군의 전통은 오늘도 우리 생활속에 맥맥히 흐르고있다.

강한 군대가 없이는 사회주의 조국을 지킬수 없고 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을 락랑구역 정백1동에서 사는 리철남동무의 가정을 통해서도 깊이 느낄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1993년 여름이였다. 최전연인민군부대에서 복무하다가 군사임무수행중 부상을 당하여 제대된 리철남동무는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속에 수도의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던 리춘실동무와 가정을 이루었다.

나라에서는 영예군인인 리철남동무에게 온갖 혜택을 베풀어주었다.

자식들도 그 고마운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럴수록 리철남동무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두고 생각이 깊어졌다.

어느날 저녁 텔레비죤화면을 마주했던 그는 중요대상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투쟁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불타는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병사들이 무척 돋보였다.

자기도 그들속에 뛰여들고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느라니 더더욱 자책감이 온몸을 휩쌌다.

나는 과연 병사시절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이어가고있는가.

그날 리철남동무는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온 안해에게 말하였다.

《당에서는 우리 영예군인들이 병사시절처럼 변함없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것을 바라고있는데…》

그는 초소의 병사들을 돕는 심정으로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할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들의 원군길은 이렇게 첫걸음을 떼게 되였다.

장갑과 어깨받치개를 비롯한 원호물자들이 마련되였다. 중요대상건설장에서는 세바퀴차를 탄 영예군인과 그의 안해가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가 울리였다. 그 노래들은 병사들의 심금을 울리며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하였다.

어느날 원호물자를 안고 건설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리춘실동무가 남편에게 근심스레 물었다.

《몸이 예전같지 않은데 일없겠어요?》

리철남동무는 한동안 말없이 창가를 바라보았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영예군인에게 우렁찬 박수로 재청을 거듭하던 병사들, 자기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며 정말 힘이 난다고, 오늘 계획도 200%는 문제없다고 진정을 담아 말하던 병사들의 그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가야 하오. 원군과 떼여놓고 어떻게 우리 생활을 말할수 있겠소.》

이렇게 그들은 병사들을 위한 원군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병사들을 마음에 두고 원군사업을 성심성의로 한 이들 부부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리철남동무와 가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원군길을 더욱 힘있게 걸었다.

그후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에 참가한 리철남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리철남, 리춘실부부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찾아 쉬임없이 걸었다.

세해전 리춘실동무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고 돌아왔을 때 끝없는 격정으로 달아오른 영예군인의 가정에서는 충정의 노래, 맹세의 노래가 그칠줄 몰랐다.

락랑구역 정오2동에서 사는 김철동무,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철민동무와 그의 가정, 락랑구역 관문소학교 학생 정태범과 그의 부모, 금성학원 학생 안무성과 그의 부모도 자기들의 지성을 합치였다.

지난 2월 영예군인부부가 둘째아들 평일이가 복무하는 부대에 보내줄 원호물자를 준비할 때에도 이들은 원군길을 함께 걷는 심정으로 자기들의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우리와 만난 락랑구역 정백1동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병사들의 뒤에 이런 사람들이 서있기에 조국이 굳건하고 우리의 행복도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원군과 우리 생활

락랑구역 정백1동에서 사는 리철남동무의 가정

이들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된 본사기자 현 경 철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원군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평양상표인쇄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여러곳 참관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일떠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승마구락부의 곳곳에 어려있다.

이곳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펼친 희한한 현실을 가슴벅차게 체험하게 되였다.

기쁨에 넘쳐있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고 강성국가의 래일을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겠다.

대표단은 또한 평양시버섯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등을 돌아보았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평양시버섯공장 참관

독자의 편지

고마운 이 제도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가슴뜨거운 사연이 적힌 편지를 받게 되였습니다.

몇해전부터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심하게 앓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군대에 나간 자식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던질것만 같아 지금껏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력포구역 장진1동사무소의 일군들과 녀맹원들, 수매량정성 아래단위의 일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낸 후방가족을 돕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병치료에 좋은 보약들과 입맛을 돋구는 갖가지 음식들을 해가지고 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후에는 수매량정성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저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의 몸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책임일군은 618건설돌격대에서 희생된 아버지처럼 살 맹세를 안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간 자식들이 군사복무를 잘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바쁜 속에서도 책임일군은 병원에 자주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를 알아보고 어머니가 치료에 전심할수 있게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눈물속에 읽으면서 저는 고마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답게 뜨거운 사랑과 정이 흘러넘치는 목숨같은 이 제도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인 최 영

민심에 칼질하는 야만의 무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패당이 《세월》호대참사 1년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파쇼적폭압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24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9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세상을 경악시킨 특대형참사인 《세월》호침몰사건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최근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반《정부》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서울과 부산, 대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지역에서 정계, 로동계, 학계, 종교계의 수백개 단체들과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살인 〈정권〉 추방》,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웨치며 대규모초불집회와 시위행진, 범국민집회, 삐라살포 등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것은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와 원한의 분출로서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유가족들과 투쟁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파쇼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지난 18일 서울에서만도 파쇼도당은 172개 중대의 1만 4 000여명에 달하는 폭압경찰을 내몰아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잡아갔다.

파쇼광들은 시위행진에 나선 유가족들과 평화적시민들을 방패로 내리찍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목을 졸라 질식시킨 후 팔다리를 꺾어 질질 끌고다녔는가 하면 녀인들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상반신이 드러나게 사지를 들어 수치심까지 주는 추악한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지어 평화적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마구 휘둘러대고 사용이 금지되여있는 독성최루액을 쏘아대다 못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눈에 최루액을 강제로 집어넣고 문지르며 고통을 주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세인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는 이러한 야수적탄압은 희세의 인권교살자이고 극악무도한 파쇼광이며 패륜패덕의 무리인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반인권적 만행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4월 16일 남조선에서 발생한 《세월》호대참사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악정에 의해 빚어진 고의적인 대학살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파철이나 다름없는 낡은 배를 제멋대로 구조변경시키고 출항당시 정량의 3배이상 초과된 화물과 정원을 훨씬 넘어선 승객을 실은 악덕업주의 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한것도 괴뢰패당이며 배가 바다물에 완전히 잠기기까지 시간적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태공으로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수백명을 고스란히 바다에 수장시킨 살인마도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현 집권자가 대참사에 분노한 민심과 여론의 항의규탄에 못이겨 《마지막실종자까지 다 찾아주겠다.》, 《무엇이든 가족들의 뜻대로 다 해주고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구조에 전념하겠다.》면서 눈물까지 훼짜는 추태를 부렸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9명의 시신은 침몰된 배와 함께 차디찬 바다밑에 내버려져있고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 등 유가족들의 요구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것이 없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이 응당한 요구를 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강제련행하는 반인륜적폭거를 감행한것은 초보적인 인간성마저 깡그리 상실한 천하의 야만행위이다.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괴뢰패당처럼 저들이 저지른 대참사로 어린 자식들을 잃고 가슴에 피가 고인 유가족들과 그들을 동정해나선 무고한 주민들을 《불순세력》, 《정치선동군》으로 매도하며 중무장한 폭압경찰을 내몰아 류혈적으로 탄압해나선 례는 찾아볼수 없다.

더우기 《세월》호유가족들과 시위참가자들이 파쇼경찰이 쏘아대는 최루액에 피를 토하며 짐승처럼 끌려가고 온 남조선이 제사집이 되여 분노와 저주로 피타게 울부짖고있던 그 시각 현 집권자가 그에 등을 돌리고 해외도피행각에 나섰을뿐아니라 화사한 옷을 떨쳐입고 축배잔을 찧으며 히히닥대면서 돌아친 추태는 온 세상을 경악케 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자기만 살기 위해 〈세월〉호를 탈출한 선장처럼 박근혜가 울부짖는 국민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갔다.》, 《박근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규탄하고 국제인권단체들까지 피뢰패당의 반인권적, 반인륜적처사를 단죄하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폭력집회》주동분자와 핵심인물을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고아대면서 더욱 탄압에 광분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현 피뢰패당이 야말로 희대의 극악무도한 인간백정의 무리, 인권유린의 원흉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민심은 곧 천심이며 민심에 칼질하는 야만의 무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한다.

현 피뢰패당과 같은 인간의 탈을 쓴 야수, 희세의 인권교살자, 파쇼광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인간의 참다운 삶을 누릴수 없고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를 피할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학살한것도 모자라 《세월》호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두벌죽음을 강요하며 파쇼적탄압만행을 감행하고있는 피뢰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파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반제자주위업의 위력한 추동력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사상과 도덕이 만장약된 총대는 언제나 백전백승한다

우리 혁명무력의 빛나는 력사를 자랑하는 뜻깊은 명절 건군절이 왔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83년의 나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백두산절세위인들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걸어온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는 백전백승을 창조한 본보기이며 그 비결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산교과서이다. 만민이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을 가진 적대세력들도 도저히 흉내낼수도 없고 제것으로 만들수도 없는 백전백승의 비결을 알고는 경악을 표시하고있다.

총대에 사상과 도덕이 만장약되여야 한다. 여기에 백전백승의 비결이 있다.

조선혁명의 전력사는 바로 사상과 도덕으로 승리해온 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력사에도 우리 혁명과 같이 첫걸음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습니다.》

두뇌가 없는 인간을 생각할수 없듯이 사상과 도덕을 떠난 조선혁명에 대하여 론할수 없다. 적수공권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사상과 도덕을 무기로 하여 첫출발을 하였고 사상과 도덕을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켜 승리를 이룩해왔다.

사상과 도덕이 만장약된 총대가 백전백승한다는것은 지난 세기에 있은 두차례의 혁명전쟁이 보여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의 일본제국주의는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한 포악한 침략의 무리였다. 서방렬강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각종 군함들과 비행기, 땅크, 대포 등을 미친듯이 만들어낸 일제는 그 무기들을 휘둘러대며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시켰다. 국권수복의 뜻을 안고 벌리던 의병투쟁도 포악한 일제의 군화에 짓밟히고말았다. 우리 인민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당시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절망속에 빠져들었던 우리 인민에게 희망과 재생의 밝은 빛을 안겨주시였다. 그 빛발을 우러러 열혈청년들이 모여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동지가 되였고 그 빛발이 가리키는대로 일제의 무기를 로획하여 자체로 무장하였다. 그리하여 안도현 소사하 토기점골등판에서 조선의 주체적인 첫 혁명적무장력이 창건될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는 조선이 처음으로 인민적무장력,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을 가지게 되였음을 온 세계에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에게 내린 선전포고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고 하면서 기관총과 대포, 비행기 등 각종 무장장비들을 다 동원하여 없애버리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가슴깊이 쪼아박은 강자들,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항일혁명투사들의 정신앞에 일제는 전률하였고 투사들의 완강한 공격에 매번 녹아나기만 하였다.

사상과 도덕으로 만장약된 조선인민혁명군이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은 언제나 감복을 금치 못하였고 물심량면으로 원호하였다. 군민대단결의 미풍은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태여난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사상과 도덕적으로 렬세하였던 일제는 끝내 패망하고말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 혁명무력은 사상과 도덕의 힘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싸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벗어난지 5년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과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적잠재력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혁명무력은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였다. 식민지적편파성과 락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경제적잠재력은 매우 청소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장기간의 침략력사를 가지고있었다. 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는 대비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최초로 핵무기를 가지고 인류에게 첫 핵참화를 들씌우는 극악한 반인륜적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한 나라이다. 비대한 힘을 믿고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로 무장한 저들의 무력을 끌어들이는것도 모자라 15개 추종국가무력과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패전을 면치 못하였다. 왜냐하면 수적,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우세할수 있었지만 사상과 도덕적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압도할수 없었기때문이다.

미제침략군을 비롯하여 추종국가무력은 모두 딸라에 팔리운 고용병들의 무리였다. 육체적생명을 제일로 여기는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꿈틀거리는것이 있다면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성이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적, 기술적우세를 떠들어대는 미제를 사상과 도덕의 우세로, 전략전술과 전법의 우세로 타승함으로써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과 도덕의 힘으로 반세기가 넘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후 우리 군대와 인민이 벌린 반미대결전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수호전이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전진을 가로막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끊임없이 핵위협공갈을 일삼았고 경제제재와 봉쇄를 끈질기게 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은 가장 가혹하였다.

랭전종식후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한 미국은 우리 나라가 종말을 고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희떱게 떠들어대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는데 총력을 들이댔다. 자기의 손아귀에 쥐여져있는 국제기구들과 작당하여 우리의 평화적핵개발을 걸고 그 무슨 《사찰》을 운운하며 우리의 자주권을 함부로 유린하려고 날뛰였다. 종당에는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어려운 때에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여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에 기초한 군민대단결을 비상히 강화하심으로써 자주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싸우는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세계적인 대정치파동과 경제위기속에서도 끄떡없었으며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과 전쟁연습책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리며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켜보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으로 영원히 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오늘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수호전의 진두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과 도덕이 만장약된 총대는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위대한 철의 진리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깊이 심어주시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하기에 외국의 한 인사는 《나는 김정은동지의 출중한 정치실력과 선군정치의 계승의 의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갈것이며 그 백승은 앞으로도 조선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적인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고 말하였다.

사상과 도덕으로 만장약된 총대가 있는 한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으로 될것이다.

리 경 수

필승의 위력한 무기

◇ 몇해전 로씨야의 한 인사가 필승의 만능론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군사기술중심론은 수십세기 군사계가 하느님처럼 모셔온 군사론이다.》라고 밝히고 그런데 조선에서는 군대의 사상정신의 힘의 결정적우위론을 내세운다, 정신적강자는 언제나 승자였다, 력사의 갈피들을 헤쳐보면 이 진리가 뚜렷이 증명된 사실들이 적지 않다고 솔직하게 피력하였다.

그렇다. 19세기, 20세기를 이어오며 요란히 주장되여온 대포만능론이나 땅크만능론, 함대만능론이나 비행기만능론, 미싸일만능론이나 핵무기만능론은 무기만능론의 변종들인것이다.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것이 변할수 없는 공식처럼 되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대력사는 그 《공식》이 잘못되였음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 사상의 힘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온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전통, 백두의 혁명전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였습니다.》

적수공권과 사상!

우리의 혁명력사는 사상만 강하면 빈주먹으로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위대한 철리를 밝혀주고있다.

돌이켜보면 항일유격대와 일제와의 대전은 보총과 대포와의 혈전이였고 적은 수의 대원들과 백만대군과의 생사를 가르는 격전이였다. 이 대결전에서 정신적강자들인 항일유격대는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면서 련전련승하였다. 당시 쏘련신문 《이즈베스찌야》는 《조일전은 김일성명장휘하의 정신적강군이 일본제국의 정신적약군을 련전련패시킨 전쟁이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최신무장장비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대결전이였다. 3년간 치렬하게 벌어진 이 전쟁도 종당에는 미국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쁘라우다》 특파기자였던 톨스찌꼬브는 그 순간을 사진에 담고 《나는 작은 나라 조선의 병사들의 불굴의 정신이 대아메리카제국의 땅크들을 헌쇠붙이로 만드는것을 직접 보았다.》고 썼다.

우리가 진행한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무기만능론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져나갔다.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사상의 무기를 절대로 가질수 없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구태의연한 무기만능론에 매여달리고있다. 핵전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미싸일방위체계 등을 만능으로 내세우면서 그런것들만 가지고있으면 마치 우리와의 대결전에서 이길것처럼 허세를 부리고있다.

하지만 백두의 맑은 물과 공기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우리 당만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혁명신념을 억세게 굳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앞에 부들부들 떨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우리의 눈치를 보며 크게 숨도 쉬지 못하고있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상만능론과 무기만능론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반드시 우리가 될것이다.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최고사령관

오늘 세계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출중한 지략으로 조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며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2012년 3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을 때 판문점을 시찰하시여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그 무슨 〈정책변화〉를 기대하던 제국주의자들의 허황한 꿈은 여지없이 깨여지고말았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정의와 사회주의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그 누구도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은 인터네트홈페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가장 큰 영광과 긍지로 된다, 김정은동지께서 찾으신 최전연초소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들, 바다와 하늘초소들은 그이의 선군혁명의지를 보여주는 증견자이다, 녀성해안포병들, 섬방어대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비행사부부들, 혁명학원 원아들뿐아니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동지의 사랑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백승만을 떨쳐갈것이다라는 글을 실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김정은정치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깊이와 폭을 알수 없는 지략으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계신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던 때 그이께서는 불현듯 적들이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에까지 나가시여 적들의 기를 꺾어버리시였다.

그런가하면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여 적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그이의 초강경의지앞에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하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시는데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는 《김정은각하:병사들의 어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군군인들이 있는 모든 초소들에로 이어지고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병사들의 침실로부터 식당, 부식물창고, 세목장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돌아보시며 생활형편을 빠짐없이 료해하시는 병사들의 친근한 어버이이시다, 그이께 있어서 병사들은 자신과 한피줄을 이은 사랑하는 아들딸들이고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이며 전우들이라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는 병사들의 친근한 어버이로 불리우고계신다고 격찬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뿐아니라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될것이며 조선인민군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83돌기의 년륜을 새겨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오늘날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 조선인민군은 오늘 자기의 뜻깊은 창건일을 맞이하였다.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조선인민군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체적혁명무력건설과 그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칭송과 흠모를 금치 못하고있다.

유럽의 한 려행사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피어린 항일전쟁을 벌리시여 1945년 8월 15일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조성된 정세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항일의 불길속에서 쌓으신 고귀한 군건설경험에 기초하여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사정치간부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하여 평양학원을 창설하고 모든 군종, 병종부대들을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도 마련해주시였다.

1948년 2월 8일 드디여 정규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알리는 성대한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소장 공동성명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해방된 후 정규무력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대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인민군은 창건된지 얼마 안되는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던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인민군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EC-121》대형간첩비행기를 격추하는 등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동들을 걸음마다 분쇄하였다라고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군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은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불패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 걸출한 군사의 영재, 천출명장이시라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해방된 후 정규무력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대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인민군은 창건된지 얼마 안되는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던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인민군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EC-121》대형간첩비행기를 격추하는 등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동들을 걸음마다 분쇄하였다라고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불멸의 군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은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불패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 걸출한 군사의 영재, 천출명장이시라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결과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비상히 강화되였고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대원수님의 군사사상과 리론은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학설이며 그이의 비범한 철학적예지와 뛰여난 군사적안목, 풍부한 군사실천경험이 집대성된 사상리론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적무장력의 창건자,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걸출한 군사의 영재로 우러러따르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더불어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선군혁명령도와 불멸의 헌신에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목소리들은 또 어떠한가.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비범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해박한 식견을 지니시고 군사학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능통하신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그이의 손길아래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최정예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였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정일, 불멸의 선군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는 조선의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김정일각하께서는 나라의 군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한 이 경이적인 현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반제자주력량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그렇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백승만을 떨치는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군건설업적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안 철 권

백승을 떨치는 불패의 혁명강군

미국식《인권기준》은 절대로 보편화될수 없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험담을 늘어놓고있는 미국에 의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무작정 《인권유린국》으로 몰리우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국제적으로 문제시되여야 할 주권국가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 민간인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들은 론의대상밖의 문제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이 해마다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인권》을 코에 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자는것이다.

현실은 로골화되는 미국의 《인권》공세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은 다른 나라들에 적용될수 없다.

국제인권협약들이 보편적성격을 띤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당사국들이 달성하여야 할 종국적목표, 일반적기준을 제시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나라와 집단의 《문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인권기준으로 될수 없다. 국제인권협약들은 결코 해당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선택된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무시하고 특정한 나라들의 《인권모델》을 일률적으로 모방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문제는 사람들의 기본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자주적인 국가정치에 의해 보장된다. 인권이 확고히 담보되고 철저히 보장되려면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이 보장되여야 한다.

인권은 국권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자주적인 정치가 실시될수 없고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작성집행될수 없다.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향유할수 없다. 자주권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는것도 이와 관련되여있다.

어느 한 나라가 국가주권을 상실당하는 경우 그 령역내에서 사는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보장은 한갖 공론으로밖에 될수 없다.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개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력사와 오늘 자기의 종교적신앙조차 모욕당하며 인간학대, 인권탄압의 피해자로 되고있는 이라크사람들의 운명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인권이자 곧 국권이며 국권이자 곧 인권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미국식《인권기준》은 본질에 있어서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제도전복을 노린것이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위한 보편적무기로 리용해오고있다. 걸핏하면 《인권경찰관》처럼 행세하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내부에서 정권붕괴, 체제전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을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의 경계심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국제적비난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권행사는 미국이야말로 가장 횡포한 자주권침해자이고 인권유린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식《인권기준》이 보편화될수 없는것은 미국이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기록을 가지고있는 나라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오늘날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의 불모지는 미국이다. 범죄가 살판치는 미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총기류가 성행하여 살인범죄가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다. 미국의 수감자수는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있는데 그것은 세계수감자총수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제도가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사법, 치안관계자들의 인권유린행위들가운데는 경찰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죽인 사건, 감옥간수들이 수감자들사이에 《고대로마의 격검식》격투를 붙여놓고 그것을 말린다고 하면서 수감자들에게 총을 쏘아 피해를 입힌 사건도 있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 저질러지는 인권유린행위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들은 인권의 불모지 미국의 실상을 적라라하게 폭로해주고있다. 국제대사령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한 《5대인권유린상황》의 맨 첫자리에 미국을 올려놓았다. 미국사회는 그야말로 인권의 폐허지대이며 민주주의동토대이다. 미국은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을 세계에 강요하려 하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와 미국식《인권》은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적혼란과 전쟁을 야기시키는 근원이다.

미국이 가져다준다던 미국식《민주주의》, 《인권》이 과연 어떤것인가는 이라크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라크의 평화적도시와 마을들이 무참히 파괴되고 무고한 인민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였으며 지금도 류혈이 그치지 않고있다. 미국의 집권세력이 《인권이 보장되고있다》며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고 떠들어댄 이라크의 실태는 바로 이러하다.

《구역질나고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미군의 수감자학대행위로 세상사람들은 강권하에서의 미국식〈자유〉의 진상과 미국식〈민주주의〉의 실체, 미국식〈인권〉의 내용을 똑똑히 가려보게 되였다.》

이것이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수감자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폭로한 외신보도의 한 토막이다.

만약 미국식《인권기준》이 보편화된다면 세계는 무법천지로, 인권의 폐허지대, 암흑천지로 변할것이다.

국제사회의 배척을 받는 미국식《인권기준》이 절대로 보편화될수 없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조차 없다.

미국은 반동적인 《인권기준》이 날로 더 큰 국제적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인권》공세는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미국은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한데 이어 《북조선인권담당 특사》까지 내왔다.

지난해 미국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악한 방법으로 꾸며내고 주견도 속대도 없는 유럽동맹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을 내세워 유엔무대에까지 상정시키는 등 력사에 류례없는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을 벌렸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공세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더이상 실현될수 없게 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제가 노리는것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내들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를 깎아내리고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국제화하며 군사적침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따위 기만적인 《인권》공세가 통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하에서는 《인권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가 혼란과 모순에 허덕이고있는 오늘날 사람들모두가 평화롭게 살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들의 복리향상에로 지향되고 정치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나라를 썩어빠진 《인권》공세로 어째보겠다는것은 가소롭다.

우리 인민은 미국의 악랄한 《인권》공세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리 현 도

남남협조의 중요성 강조

이란외무성 부상이 20일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를 위한 상급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남남협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불평등과 부정의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렬강들은 부당한 경제제재를 일삼으면서 더욱 분별없이 날뛰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늘날 남남협조는 더욱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꾸바와 엘 쌀바도르가 17일 무역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조문건에 조인하였다.

한편 최근 로씨야와 벨라루씨가 범죄와의 투쟁에서 협력할데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과거력사를 미화분식하려는 당국의 처사에 불만

일본인들속에서 과거력사를 미화분식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4일 이 나라의 《아사히신붕》이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학교들에서 구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비률이 약 80%에 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064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